

중 ·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체험이 진로계획 인식에 미치는 차이

Differences in Career Education and Experienc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Plan Recognition

정지애*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Ji-ae Jeong*

School of Liberal Arts, Seowon University, Cheongju 28674, Korea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체험의 경험과 만족도에 의한 진로계획(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진로·직업 및 직업관 영역'을 활용하여 만 13세~18세의 청소년 2,998명을 중·고등학생 집단(경험무집단, 경험불만족집단, 경험만족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계획의 집단별 차이는 대다수 경험만족집단이 경험무집단과 경험불만족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진로교육 및 체험을 경험하고 만족할 수록 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기준과 미래조망의 경우 경험불만족집단에 비해 경험무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험에 만족을 할 경우 중학생 집단의 평균치가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career plans(life goals, self-standards, future prospect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and experiences of adolescents. To this end, 2,998 adolescents aged 13 to 18 are divided in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groups(Inexperienced group, Dissatisfied group, experienced satisfaction group) by utilizing the 'career, career and vocational field' of the Youth Comprehensiv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ifferences by group of career plans were higher in the majority of experienced satisfaction groups than in the inexperienced and dissatisfied groups, and the more experienced and satisfied the career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more confident they were in life goals, self-standards, and future prospec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standards and future prospects, the satisfaction of the inexperienced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issatisfied group, and when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the average value of the middle schoo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 school group.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Experience, Career Plan, Adolescents, Free Grade Operation

<http://dx.doi.org/10.14702/JPEE.2020.24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0 April 2020; **Revised** 9 May 2020

Accepted 18 Ma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career4ui@naver.com

I. 서론

2020년 COVID-19(코로나)는 ‘비운의 고3’이라는 주제로 국민 청원까지 이루어져 불확실한 현대 사회변화에서 진로 적응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015년 중학교에 입학하여 개정 교육과정 및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진로준비의 어려움과 역동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제로, 진로는 체제로서의 개인이 나머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확산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즉 사회 환경 변화는 개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2].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으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색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진로결정 시기이다[3].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의 교육은 직업 준비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4]. 성장기에 획득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선택을 분명히 하여 이후 직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으로 공부와 삶의 연결점을 찾아주는 진로교육, 창의적인 진로설계, 평생 진로개발역량, 미래 직업세계 변화를 예측한 진로선택 및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5]. 2016년에는 진로교육 중심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6]. 게다가 2018년에는 한학기의 자유학기제를 확대·발전시킨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었다[7]. 하지만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가 학교 교육에서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 집중 실시라는 의미 외에는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하더라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8].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로 시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9]. 따라서 청소년기 진로교육과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자유학기제 시행 전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로교육 및 체험에 대한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패널자료로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시기인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과 체험에 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대다수 진로교육과 체험의 경험여부에 대한 효과[10-13]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효과성 연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로교육 및 체험에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닌 만족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고등학생의 진

로교육 및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여부와 만족도로 구분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섯가족부에서 조사한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16] ‘진로·직업 및 직업관 영역’을 활용하여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조사된 청소년을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기 진로발달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 및 체험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이 진로계획(인생 목표)에 미치는 집단별(경험무/경험불만족/경험만족)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이 진로계획(자기기준)에 미치는 집단별(경험무/경험불만족/경험만족)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이 진로계획(미래조망)에 미치는 집단별(경험무/경험불만족/경험만족)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청소년기 진로발달

청소년기(Adolescence)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시기로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전환의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신체적, 성적, 정서적, 지적 성숙도를 지닌 시기이다[17]. Tuckman(1974)은 진로발달 과정을 자기인식, 진로인식, 진로결정의 8단계로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는 6단계에서 8단계로 자기결정, 상호관계, 자화를 거쳐 주변의 요인들을 인식하여 진로선택에 고려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탐색적인 직업 활동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18]. Ginzberg(1984)는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의 발달단계를 환상기-잠정기-현실기로 나누었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잠정기는 흥미, 능력, 가치, 전환으로 세분화되어 직업선택시 이를 고려하나 현실적인 요인은 고려되지 않는다. 현실기는 탐색, 구체화, 특수화로 세분화되어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19]. Super(1980)도 개인의 직업선택 과정을 생애 발달과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하였다. 이중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는 단계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즉 청소년기는 진로교육과 체험의 진로탐색을 통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자기개념을 형성하며 진로발달을 이루어 가는 시기이다[3]. 청소년기 성공적인 진로발달은 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성인이 진로발달의 핵심인 직업선택의 구체화 및 진로 설정의 확립에 기초가 된다[1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벌주위와 취업경쟁으로 인해 청소년기 발달과업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5].

B. 진로교육

진로교육은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성숙한 시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20]. 진로결정기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14]. Hyslop-Marginson과 Graham(2001)에 의하면 학교 진로교육이 시장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학생을 수동적인 학습자로만 규정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시장 구조의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21]. 이에 학생이 주체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맥락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적 학습 원리가 중요하다[22]. 이와 같은 진로교육 패러다임 맥락으로 교육부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2016년 4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하지만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체제는 우리 자체의 고유성보다는 미국의 NCDG(진로개발지침)와 캐나다의 BLWD(Blueprint for Life/Work Designs)와 유사하여 개선이 요구된다[6]. 때문에 향후 진로교육은 현장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 접근성 강화로 개인이 스스로 진로 및 경력경로를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5]. 진로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고[15], 진로와 직업 수업과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의 진로교육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10]. 또한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기 주요한 진로발달과제인 진로계획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11,14]. 즉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무엇을 경험하였냐와 그에 대한 만족도가 청소년기 진로발달에서 중요하다.

C. 진로체험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에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였다[23]. 진로체험활동은 ‘경험’, ‘경험학습’, ‘체험활동’의 개념과 함께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 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전활동-체험-사후활동의 순환과정으로 정의되었다. 진로체험에 대한 진로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홀랜드이론에서는 단순한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직업유형이 자신의 성격유형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사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진로정보처리이론에서 더욱 강조되어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로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발달을 역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진로발달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여 검사나 정보의 처리를 넘어 체험이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도 과제접근기술 등을 통하여 경험이나 체험의 결과요인, 즉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큰 관심을 둔다[24]. 이러한 측면은 진로체험의 효과는 개인이 지각하는 경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중요한 이유임을 재차 알 수 있다. 진로체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은 미경험 집단보다 진로성숙태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25]. 진로체험은 진로결정을 하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검증과 확신을 갖게 하고, 미경험 사람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6]. 직업체험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함에 있어 자기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로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27]. 즉 직접 체득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은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효과적으로 도와 청소년기 진로발달과업인 미래에 대한 진로계획까지 조망하게 한다.

D. 진로계획

진로계획이란 진로발달의 중요한 하위개념으로 자신의 진로방향 선택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이다[28].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에 초점을 두며 가치관, 흥미, 능력, 성취도와 일과 생활경험이 진로계획에 포함된다. 진로계획의 목표는 궁극적인 삶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장·단기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진학계획과 직업준비계획을 포함한다[29]. 진로계획과 결정은 특정 단계만이 아닌 체계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애발달과정에서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진로의식 탐색 및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시켜 주어야 한다는 진로학습이론과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돕는 진로선택 및 결정이론으로 들 수 있다[12]. 이러한 학습축면이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체험이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 진로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조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직업체험학습은 초·중기 청소년의 진로계획성 및 직업정보 습득 및 진로선택 요인에 영향을 나타냈고, 특히 중학생 시기가 영향이 컸다[11]. 직업체험을 통해서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고 진로계획과 결정에 직업체험 참여를 통한 학습이 도움이 되었다[26,27]. 중·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학생일수록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계획성이 높았고, 자신의 진로 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진로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3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발판삼아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생애 진로발달 및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직업선택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벌주의, 취업경쟁, 획일화된 교육 등으로 청소년기 진로계획이 어렵기에[5,6],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미결정은 42.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14]. 진로는 체제로서 개인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2], 진로결정 어려움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만 13~18세의 희망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76.15%)과 석사 이상(11.17%)이 전체 87.32%에 높은 수치를 보였고, 향후 진로계획도 취업(9.47%)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82.09%)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는 결정(30.19%)에 비해 미결정(69.81%)이 높게 나타나[16] 청소년기 진로발달과업 달성에 논란이 있다.

III. 연구방법

A. 분석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를 모집단(sampled population)으로 고려하였다.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가구를 표본추출 단위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방법으로 9~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3년 주기 횡단자료로 2011년(전국 2,200가구)을 시작으로 2014년(전국 2,000가구)에 실시되었고, 2017년(전국 5,078가구)에는 「청소년가치관조사」와 통합되어 ‘건강 영역, 참여·활동 영역, 가정생활 및 가족관 영역,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영역, 진로·직업 및 직업관 영역, 사회관 영역’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청소년 7,500명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p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청소년 응답자 중에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진이 중·고등학생 연령대로 지칭한 만 13~18세를 추출하여 이를 중·고등학생으로 분류하여 최종 2,998명을 확정하였다(표 1).

B. 분석변수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의 ‘진로·직업 및 직업관 영역’의 문항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경험, 진로체험 경험, 진로 및 직업선택’ 영역을 각각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로계획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특히 ‘진로계획’의 경우 목표 및 자기기준[29]과 진로방향 선택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28]의 인식을 나타내는 3문항을 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표 1. 분석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Analyz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남	여	전체(명)	비율(%)	소계(명)	비율(%)	비고
중학생	1학년	308	265	573	(19.1)	1,529	만 13세
	2학년	237	213	450	(15.0)		만 14세
	3학년	266	240	506	(16.9)		만 15세
고등학생	1학년	246	250	496	(16.5)	1,469	만 16세
	2학년	253	277	530	(17.7)		만 17세
	3학년	235	208	443	(14.8)		만 18세
계	1,545	1,453	2,998	100.0%	2,998	100.0%	

표 2. 분석변수 및 기술통계

Table 2. Analysis variable and technical statistics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Min	Max	측정내용	
진 로 교 육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1.72	1.40	-.20	1.38	0	4	1. 경험해본 적 없다 2. 경험해본 적 있다 (①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매우 도움이 되었다)	
	2) 현장 학습이나 견학	1.57	1.44	.03	1.36	0	4		
	3) 상담선생님의 상담 중심	1.76	1.39	-.20	1.49	0	4		
	4) 진로관련 검사	1.74	1.39	-.18	1.48	0	4		
	5) 인터넷 또는 동영상	1.22	1.35	.45	1.61	0	4		
	6)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	1.02	1.35	.78	1.96	0	4		
	7)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	1.10	1.39	.67	1.79	0	4		
	8) 재량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	1.20	1.42	.53	1.61	0	4		
진 로 체 험	1) 진로박람회 간 경험	.86	1.33	1.03	2.35	0	4	→ (a)경험무집단 (b)경험불만족집단 (c)경험만족집단	
	2)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체험	.93	1.31	.86	2.07	0	4		
	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55	1.12	1.76	4.49	0	4		
	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견학 프로그램	.66	1.22	1.49	3.56	0	4		
진 로 계 획	진로 및 직업 선택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2.74	.69	.10	2.51	1	4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④매우 그렇다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3.05	.61	-.22	3.41	1	4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5	.60	-.24	3.55	1	4	

분석을 위하여 진로교육 및 체험 집단을 중·고등학생의 2개 지수(index) 값으로 가공-처리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경험유 집단을 불만족과 만족으로 가공-처리하여 ‘경험무집단’, ‘경험불만족집단’, ‘경험만족집단’의 3개 지수(index) 값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변수의 구성과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값 등 신뢰도를 포함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C.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TATA 14와 SPSS 25 를 사용하여 통계처리의 유의도는 각각 $p<.001$, $p<.01$, $p<.05$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분

표 3. 분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Table 3. Reliability and feasibility verification

측정항목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로계획	공통성	분산%	α	
진로교육	1) 진로와 직업 과목	.784	.192	.025	.617	42.628	.91	
	2) 현장학습/견학	.761	.095	.020	.626	12.393		
	3) 상담선생님의 상담	.758	.168	.120	.588	7.582		
	4) 진로관련 검사	.729	.289	.106	.652	5.614		
	5) 인터넷/동영상	.711	.410	.071	.577	4.391		
	6) 소집단/동아리 활동	.692	.414	.052	.681	3.760		
	7) 저명인사/선배 초청강연	.692	.445	.066	.654	3.517		
	8) 재량활동(창의적체험활동)	.670	.333	.132	.678	3.432		
진로체험	1) 진로박람회	.214	.793	.053	.517	3.281	.78	
	2)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체험	.243	.745	.092	.542	2.866		
	3) 산업체 프로그램	.304	.670	.033	.677	2.714		
	4) 대학 학과(전공)견학 프로그램	.291	.657	.012	.622	2.330		
진로계획	진로 및 직업 선택	인생목표	.086	.047	.813	.630	2.259	.73
		자기기준	.085	-.004	.807	.658	1.731	
		미래조망	.055	.102	.785	.671	1.502	

KMO: 21,792.099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2(105)=21,792.099$, $p<0.001$

석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값을 구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규명하였다. 셋째,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집단별(경험무/경험불만족/경험만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분석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분석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모든 잠재변인에 있어 총 3개 요인으로 요인구조가 도출되었으며, KMO 값은 .917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21,792.099(P<0.001)에서 6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각 요인의 측정항목 신뢰성도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의 일관성을 나타냈다.

B. 진로계획(인생목표)의 집단별 차이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의한 집단별 진로계획(인생목표)의 차이는 표 4와 그림 1과 같다. 중·고등학생 진로교육 및 체험의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고, 대다수 변인이 경험만족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만족할수록 인생목표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또한 중·고등학생 간 변인의 평균 차이는 경험무집단과 경험불만족집단의 대다수가 고등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중학생보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중학생은 경험만족일 경우에는 고등학생보다 인생목표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진로계획(인생목표)의 집단별 차이

Table 4.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 (life goal)

구분	경험 무(a)			경험 불만족(b)			경험 만족(c)			F Bartlett	사후검증 Scheffe	
	M	SD	N	M	SD	N	M	SD	N			
중 학 생	①	2.63	.66	648	2.57	.70	284	2.89	.73	612	30.00***	a<c, b<c
	②	2.67	.67	644	2.61	.70	267	2.84	.73	618	14.00***	a<c, b<c
	③	2.70	.70	621	2.54	.66	331	2.86	.71	577	22.69***	a)b, a<c, b<c
	④	2.69	.68	589	2.58	.71	328	2.84	.71	612	16.74***	a<c, b<c
	⑤	2.63	.66	818	2.66	.72	312	2.97	.74	399	34.37***	a<c, b<c
	⑥	2.67	.70	942	2.69	.74	232	2.90	.71	.55	15.01***	a<c, b<c
	⑦	2.68	.69	954	2.68	.72	234	2.89	.72	341	12.64***	a<c, b<c
	⑧	2.67	.69	805	2.59	.69	239	2.90	.72	445	21.85***	a<c, b<c
	⑨	2.68	.70	1,029	2.75	.70	140	2.84	.73	360	6.92***	a<c
	⑩	2.68	.70	955	2.59	.65	203	2.93	.71	371	22.34***	a<c, b<c
	⑪	2.67	.69	1,229	2.84	.70	118	3.00	.74	182	18.85***	a<c
	⑫	2.68	.70	1,223	2.78	.67	110	2.95	.74	196	12.85***	a<c
고 등 학 생	①	2.67	.64	477	2.66	.71	311	2.88	.67	681	17.73***	a<c, b<c
	②	2.70	.67	612	2.73	.72	321	2.86	.66	536	9.26***	a<c, b<c
	③	2.72	.69	408	2.64	.66	384	2.86	.67	677	13.47***	a<c, b<c
	④	2.74	.70	441	2.62	.67	385	2.86	.65	643	16.56***	a<b<c
	⑤	2.68	.65	721	2.74	.68	388	2.94	.70	360	22.01***	a<c, b<c
	⑥	2.72	.66	876	2.73	.69	266	2.91	.70	312	10.66***	a<c, b<c
	⑦	2.72	.66	789	2.70	.72	268	2.89	.67	412	9.99***	a<c, b<c
	⑧	2.71	.66	698	2.71	.67	266	2.91	.70	396	12.41***	a<c, b<c
	⑨	2.74	.68	1,022	2.73	.63	162	2.87	.70	285	4.72**	a<c
	⑩	2.74	.68	957	2.74	.68	260	2.67	.68	252	3.72*	a<c
	⑪	2.74	.68	1,135	2.71	.68	132	2.91	.68	202	5.71**	a<c, b<c
	⑫	2.71	.67	1,051	2.78	.66	131	2.97	.69	287	16.85***	a<c, b<c

※ *p<.05, **p<.01, ***p<.001, 음영은 집단 내 평균 2위, 굵은체는 중·고등학생 비교시 높은 평균 집단

※ 진로교육(①진로와 직업 과목 ②현장학습/견학 ③상담선생님의 상담 ④진로관련 검사 ⑤인터넷/동영상 ⑥소집단/동아리 활동 ⑦저명인사/선배 초청강연), 진로체험(⑧재량활동(창의적 체험 활동) ⑨진로박람회 ⑩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체험 ⑪산업체 프로그램 ⑫대학 학과(전공)견학 프로그램), 이하 표기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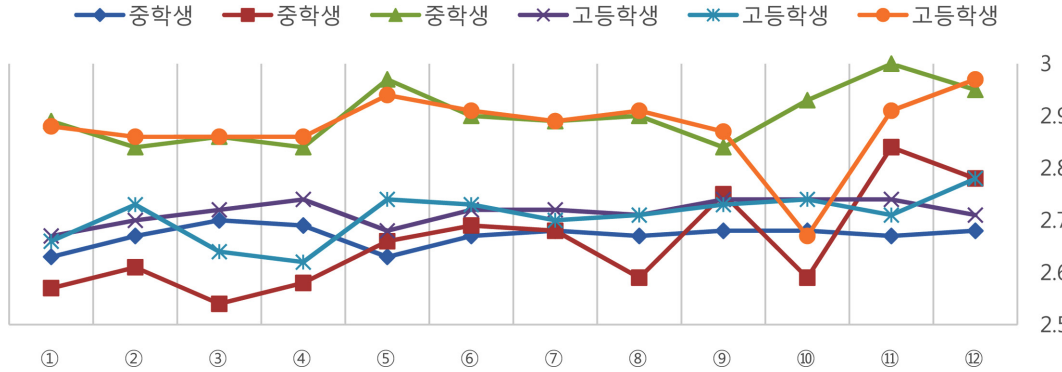


그림 1. 진로계획(인생목표)의 집단별 차이
 Fig. 1.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life goal).

C. 진로계획(자기기준)의 집단별 차이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의한 집단별 진로계획(자기기준)

의 차이는 표 5와 그림 2와 같다. 중·고등학생 진로교육 및 체험의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고, 대다수 변인이 경험만족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만족할수록

표 5. 진로계획(자기기준)의 집단별 차이

Table 5.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 (self-based)

구분	경험 무(a)			경험 불만족(b)			경험 만족(c)			F Bartlett	사후검증 Scheffe	
	M	SD	N	M	SD	N	M	SD	N			
중 학 생	①	2.93	.60	618	2.96	.61	284	3.18	.59	612	28.71***	a<c, b<c
	②	2.95	.62	644	3.00	.59	267	3.15	.58	618	18.99***	a<c, b<c
	③	3.03	.62	621	2.91	.58	331	3.12	.59	577	13.65***	a<c, b<c
	④	3.00	.63	589	2.94	.61	328	3.13	.57	612	11.64***	a<c, b<c
	⑤	2.97	.61	818	3.04	.55	312	3.19	.62	399	18.85***	a<c, b<c
	⑥	3.00	.63	942	2.99	.53	232	3.17	.57	355	11.71***	a<c, b<c
	⑦	3.02	.62	954	2.98	.59	234	3.14	.57	341	6.94**	a<c, b<c
	⑧	3.01	.63	805	2.93	.57	239	3.15	.56	445	12.53***	a<c, b<c
	⑨	3.01	.60	1,029	2.95	.67	140	3.14	.57	360	7.86***	a<c, b<c
	⑩	3.00	.62	955	2.97	.58	203	3.18	.56	371	13.81***	a<c, b<c
	⑪	3.03	.61	1,229	2.99	.56	118	3.16	.62	182	4.25*	a<c
	⑫	3.02	.61	1,223	2.96	.56	110	3.18	.62	196	6.48**	a<c, b<c
고 등 학 생	①	2.98	.66	477	3.01	.59	311	3.13	.57	681	9.41***	a<c, b<c
	②	3.00	.65	612	3.00	.58	321	3.15	.56	536	10.02***	a<c, b<c
	③	3.03	.66	408	2.98	.61	384	3.12	.57	677	7.59***	b<c
	④	3.05	.66	441	2.96	.60	385	3.12	.57	643	8.69***	b<c
	⑤	2.99	.63	721	3.02	.57	388	3.24	.57	360	22.17***	a<c, b<c
	⑥	3.02	.65	876	3.02	.54	266	3.19	.53	312	9.52***	a<c, b<c
	⑦	3.02	.64	789	3.00	.56	268	3.17	.56	412	10.73***	a<c, b<c
	⑧	3.00	.65	698	3.03	.67	266	3.19	.52	396	12.17***	a<c, b<c
	⑨	3.05	.61	1,022	3.01	.63	162	3.08	.58	285	0.12	-
	⑩	3.05	.62	957	3.03	.61	260	3.11	.56	252	1.07	-
	⑪	3.05	.61	1,135	2.95	.72	132	3.16	.52	202	5.31**	b<c
	⑫	3.04	.61	1,051	2.98	.65	131	3.17	.58	287	7.12***	a<c, b<c

*p<.05, **p<.01, ***p<.001, 음영은 집단 내 평균 2위, 굵은체는 중·고등학생 비교시 높은 평균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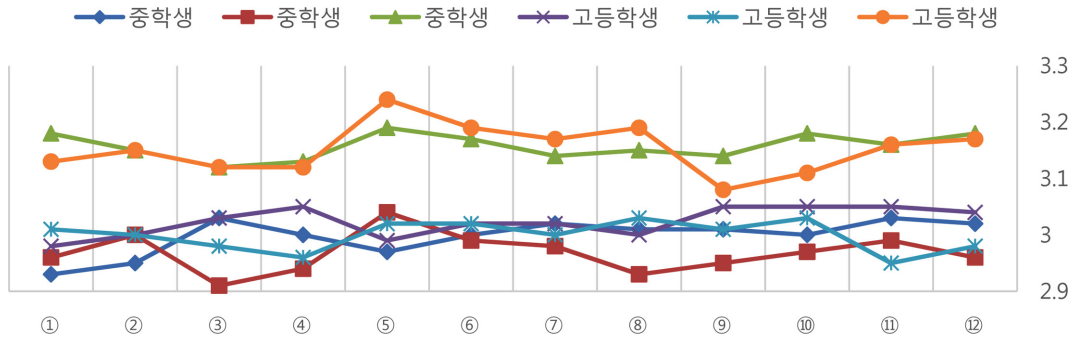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계획(자기기준)의 집단별 차이

Fig. 2.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self-based).

자기기준 선택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특이점으로 중학생의 진로와 직업 과목, 현장학습/견학, 인터넷/동영상과 고등학생의 진로와 직업 과목, 인터넷/동영상, 창의적체험활동을 제외하고는 경험무집단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D. 진로계획(미래조망)의 집단별 차이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의한 집단별 진로계획(미래조망)의 차이는 표 6과 그림 3과 같다. 중·고등학생 진로교육 및 체

표 6. 진로계획(미래조망)의 집단별 차이

Table 6.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future view)

구분	경험 무(a)			경험 불만족(b)			경험 만족(c)			F Bartlett	사후검증 Scheffe	
	M	SD	N	M	SD	N	M	SD	N			
중학생	①	2.88	.57	618	2.85	.69	284	3.09	.55	612	24.80***	a<c, b<c
	②	2.88	.54	644	2.81	.64	267	3.11	.60	618	35.04***	a<c, b<c
	③	2.92	.57	621	2.85	.61	331	3.07	.59	577	18.62***	a<c, b<c
	④	2.90	.57	589	2.89	.64	328	3.06	.58	612	13.87***	a<c, b<c
	⑤	2.92	.59	818	2.89	.62	312	3.11	.55	399	17.99***	a<c, b<c
	⑥	2.92	.58	942	2.87	.59	232	3.13	.60	355	20.06***	a<c, b<c
	⑦	2.92	.57	954	2.91	.62	234	3.11	.62	341	14.68***	a<c, b<c
	⑧	2.92	.58	805	2.82	.63	239	3.11	.58	445	23.40***	a<c, b<c
	⑨	2.94	.58	1,029	2.87	.64	140	3.06	.62	360	7.07***	a<c, b<c
	⑩	2.91	.59	955	2.86	.61	203	3.12	.57	371	19.39***	a<c, b<c
	⑪	2.93	.60	1,229	2.97	.48	118	3.16	.62	182	11.80***	a<c, b<c
	⑫	2.93	.60	1,223	2.99	.53	110	3.14	.89	196	10.45***	a<c
고등학생	①	2.86	.63	477	2.82	.65	311	3.03	.53	681	19.06***	a<c, b<c
	②	2.83	.62	612	2.88	.58	321	3.07	.56	536	25.07***	a<c, b<c
	③	2.93	.61	408	2.79	.59	384	3.01	.58	677	15.98***	a<b, b<c
	④	2.90	.61	441	2.82	.63	385	3.02	.56	643	14.12***	a<c, b<c
	⑤	2.88	.59	721	2.84	.61	388	3.13	.55	360	12.52***	a<c, b<c
	⑥	2.90	.60	876	2.85	.55	266	3.09	.62	312	15.51***	a<c, b<c
	⑦	2.88	.59	789	2.85	.62	268	3.08	.57	412	18.94***	a<c, b<c
	⑧	2.86	.61	698	2.84	.57	266	3.11	.56	396	25.52***	a<c, b<c
	⑨	2.82	.59	1,022	2.88	.61	162	2.99	.62	285	231	-
	⑩	2.93	.60	957	2.83	.62	260	3.05	.57	252	8.49***	a<c, b<c
	⑪	2.92	.60	1,135	2.78	.69	132	3.08	.56	202	10.59***	a)b, a<c, b<c
	⑫	2.90	.59	1,051	2.83	.65	131	3.10	.57	287	15.35***	a<c, b<c

*p<.05, **p<.01, ***p<.001, 음영은 집단 내 평균 2위, 굵은체는 중·고등학생 비교시 높은 평균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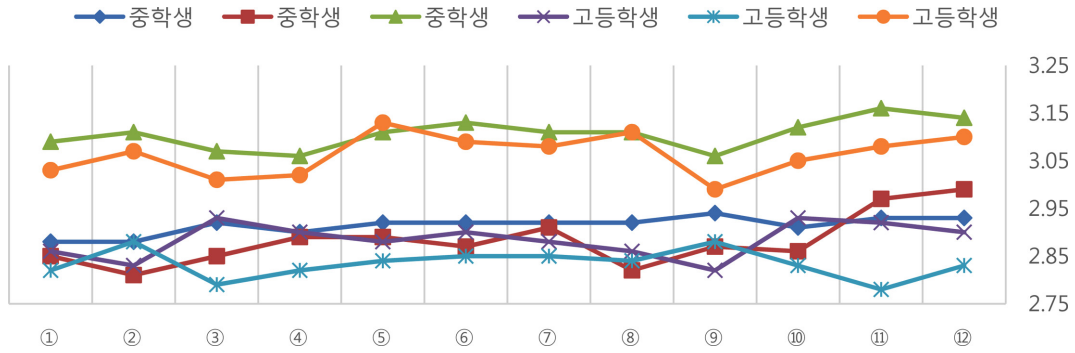


그림 3. 진로계획(미래조망)의 집단별 차이
 Fig. 3. Difference by group of career plan(future view).

험의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고, 대다수 경험만족집단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 진로교육 및 체험을 경험에 만족할수록 희망 직업 미래조망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특이점으로 중학생의 모든 변인에서 경험무집단 평균치가 경험불만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현장학습과 진로박람회를 제외하고는 경험무집단의 평균치가 경험불만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간 변인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대다수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체험의 경험과 만족도에 의한 진로계획(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향후 청소년기 진로발달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 및 체험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만 13세~18세의 청소년 2,998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집단을 경험무집단, 경험불만족집단, 경험만족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진로계획(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의 집단별 차이는 중·고등학생 진로교육 및 체험의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고, 대다수 경험만족집단이 경험무집단 및 경험불만족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높게 나타나 진로교육 및 체험 경험에 만족할수록 인생목표, 자기기준, 미래조망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또한 인생목표와 자기기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고등학생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 미래조망에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효과와 더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의 연

령별 성장에 따른 진로발달과정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등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입시와 취업경쟁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진로선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진로교육 및 지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를 비롯하여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에서 자기이해를 기초로 직업선택을 분명히 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입시와 취업경쟁 패러다임보다는 사람과 능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더욱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특이하게 살펴볼 점은 경험여부에 따라 경험만족집단의 후순위(음영표기)인 경험무집단과 경험불만족집단 간 차이와 중·고등학생 집단 간(굵은체) 차이이다.

첫째, 경험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후순위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가? ‘자기기준’의 경우 중학생의 진로와 직업 과목, 현장학습/견학, 인터넷/동영상과 고등학생의 진로와 직업 과목, 인터넷/동영상, 창의적체험활동을 제외하고는 경험무집단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조망’도 중학생의 모든 변인에서 경험무집단이 경험불만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현장학습과 진로박람회를 제외하고는 경험무집단의 평균치가 경험불만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및 체험의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경험보다는 경험에서의 질적인 만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으로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5]. 따라서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자유학년제의 진로탐색 효과가 향후 진로계획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개인별 1:1 맞춤형 진로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등학생 간 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인생목표’의 경우 대다수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중학생보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험만족집단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보다 인생목표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기준’도 경험만족집단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래조망’의 경우 대다수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외부의 진로체험 활동 연계는 교수-학습 영역에 비해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 저해요인으로 ‘체험 인프라 부족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예산 지원의 단절과 불확실성’이 나타났다[13].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는 진로교육 집중 실시라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8]. 진로교육 과정의 운영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31]. 즉 진로교육과 체험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의 만족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진로교육과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만 13~18세를 대상으로 살펴본 점이다. 이를 통해 학교진로교육은 청소년기 진로발달특성을 고려해서 현장과 연계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향후 청소년기 진로교육과 체험은 진로발달단계의 순환과정으로 진로목표 및 계획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으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의 경험유무와 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전-사후의 단편적인 성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험유무와 만족·불만족에 의한 진로계획 차이를 유형화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교육에서 1:1 맞춤형과 질적인 만족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설계는 패널조사 결과에 의해 ‘나이’로 제한하였기에 ‘학교’를 비롯하여 ‘가족환경’ 및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한 기제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 차이를 반영하여 진로교육 및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와 차별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의 종단분석이 아닌 2017년 한 시점에서 대상별 차이를 본 연구이다.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연령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활용된 진로계획의 가치관항목은 2017년에 추가되어 비교연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패널 변화에 의한 종단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진로교육 및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인식 및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았다. 향후 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진로교육 및 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변인연구의 양적 연구와 실험연구와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B. H. Kim, J. K. Lee, H. S. Yoo, M. H. Hwang, Y. J. Gong, J. H. Son, H. Y. Kang, J. H. Kim, J. Y. Ryu, E. M. Lim, and E. Y. Son, *Career Counseling Theory*. Seoul: Hakjisa, 2013.
- [2] C. Y. Jyung, J. H. Jeong, J. B. Lee, J. S. Nam, J. E. Jeong, and S. H. Im, “The content analysis of career education curriculum on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151-171, September 2017.
- [3]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6, no. 3, pp. 282-298, 1980.
- [4] R. S. Sharf,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 Nelson Education, 2016.
- [5] C. Y. Jyung, J. C. Jeong, J. B. Lee, D. G. Jeong, H. S. Lim, S. J. Lee, and J. H. Lim, “Career education in South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155-171, September 2015.
- [6] S. W. Seo. “A comparative study on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1, pp. 195-218, February 2018.
- [7] Ministry of Education. *2017 Career Educatio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2017.02.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7.
- [8] S. J. Choi, G. N. Lee, J. S. Nam, H. S. Lim, and K. H. Cho, “Delphi analysis on the operation for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0, pp. 109-131, May 2017.
- [9] S. H. Osipow and L. F. Fitzgerald,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10] I. B. Song and H. Y. Kang,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for Ju-

- 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0, pp. 140-149, August 2016.
- [11] K. Y. Park, "The effect of work-based experiential learning on career plan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3, pp. 115-130, September 2008.
- [12] M. S. Kang and Y. S. Park, *Analysis of the Career Decision Proces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84.
- [13] C. K. Shin and M. J. Park, "The case study of three schools with free-semester poli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3, no. 1, pp. 309-338, April 2015.
- [14] K. G. Lee and C. Y. Kang,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factors of adolescents: a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career decision level by utiliz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6, pp. 61-82, May 2017.
- [15] Y. K. Au, "Estimating change patterns i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feeling on career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21, no. 4, pp. 23-41, December 2008.
- [16] H. J. Baek, H. J. Lim, H. C. Kim, and S. C. Yoo, *Overall Survey of Youth*,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 [17] B. O. J. Omatseye, "The adolescent quest for autonomy: Renegotiating a cordial relationship," *College Student Journal*, vol. 41, no. 3, pp. 623-631, 2007.
- [18] B. W. Tuckman,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 no. 2, pp. 193-212, 1974.
- [19] E. Ginzberg, *Career developm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172-190, 1984.
- [20]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Career Education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career education 2012-1)*,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2.
- [21] E. J. Hyslop-Marginson and B. Graham, "Principles for democratic learning in career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vol. 26, no. 3, pp. 341-361, 2001.
- [22] E. J. Hyslop-Marginson and A. McKerracher, "Ontario's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program: A democratic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vol. 21, no. 2, pp. 133-142, 2008.
- [2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Youth white paper*, 11-1383000-000102-10,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 [24] H. C. Kim, H. J. Paik and J. Y. Lee,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f Career Experiences In Asian Youth (I. Research Report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2016
- [25] K. K. Nelson, *How Relevant Career Experiences Influence Career Decision Mak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3305, 1990.
- [26] G. Y. Park and K. R. Noh,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Youth Vocational Experience Learning Program*,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6.
- [27] M. J. Shin, H. K. Yu, and Y. S. Cho, "Developmen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job shadowing,"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1, pp. 39-57, March 2008.
- [28] A. Y. Kim, S. K. Yoo, and B. H. Kim, *Career Development Test for Youth(1st year research report)*,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5.
- [29] C. K. Kim, "A study on the career planning applied concepts of career development approach,"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0, no. 1, pp. 135-182, June 1999.
- [30] H. J. Joo and S. C. Le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no. 2, pp. 157-180, 2014.
- [31] J. Moon and K. H. So, "An analysis of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 focusing on excellent schools in curriculu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4, pp. 135-155, December 2016.



정 지 애 (Ji-ae Jeong) _종신회원

2016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상담학 석사)

2019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상담학 박사 수료)

2017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진로 및 심리상담, 상담기법, 프로그램 개발